

방글라데시 경제 개요

목 차

I. 방글라데시 개황	1
II. 방글라데시 경제현황과 전망	4
III. 한-방글라데시 경제교류	10
IV. 출장준비 참고사항	13
V.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16
VI. 무역관 오시는 길	19
VII. 현지기관 및 식당 안내	20
VIII. 무역관 직원 안내	22

I. 방글라데시 개황

1. 일반 사항

국 명	방글라데시 인민 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위 치	남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소재하며 동/서/북쪽은 인도에 둘러싸여 있음(남동쪽은 미얀마와 접경) (북위 20~26도, 동경 88~92도)
면 적	147,570km ² (한반도 전체의 약 2/3)
기 후	겨울(11~2월), 여름(3~6월), 우기(7~10월)로 구분, 아열대 몬순 기후
수 도	다카(Dhaka) * 1982년까지Dacca로 표기
인 구	1억 6,918만 명 (2023년 4월 1일 UN 기준) *세계 8위
주요 도시	다카(Dhaka) 1,251만, 치타공(Chittagong) 791만, 실렛(Sylhet) 531만, 라즈사히(Rajshahi) 257만, 랑푸르(Rangpur) 286만, 바리잘(Barisal) 241만, 쿨나(Khulna) 229만 상기 인구는 'District' 기준임. Division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며, 그 아래 행정단위가 'District'로 Dhaka Division의 경우 Dhaka District를 포함한 17개의 District로 구성되어 있음. 좁은 의미에서 다카 시(city)는 Dhaka District의 일부분임
민 족	벵골족(98%), 기타 소수 민족(Chakma족, Mogh족, Mru족, Bom족, Mizo족, Pankhu족 등)
언 어	국민의 95% 가량이 아리아 언어의 하나인 벵골어 사용 (지식인 비즈니스 종사자는 영어 능통)
종 교	이슬람교 89.1%, 힌두교 10%, 불교 0.6%, 천주교 0.2%, 기타 0.1%
건국(독립)일	1971년 3월 26일(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실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2월 29일 9대 총선을 통해 하시나 총리가 집권함으로써 2007년 1월 비상사태 선포 이후 23개월간 지속됐던 임시 과도정부 체제가 민선정부 체제로 복귀 - 2014년 1월 5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10대 총선이 치러져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리그당(AL)이 재집권 - 2018년 12월 30일에 진행된 총선에서도 아와미리그당(AL)의 압도적인 승리(전체 298석 중 259석 차지)로 2023년까지 하시나 총리가 집권 ○ 대통령: Abdul Hamid(20~21대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4월 취임 후 2018년 4월 연임 -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회에서 선출

2. 한-방글라데시 관계

	체결일	체결내용
체결 협정	'73.07	통상협정
	'73.12	외교관계 수립
	'79.02	항공협정
	'83.02	사증면제 협정
	'83.05	이중과세방지협정
	'86.06	투자보증협정
	'93.12	경제기술협력협정
	'95.05	과학기술협력협정
	'04.01	군수/방산 협정
	'07.06	인력송출 협정
	'07.11	에너지협력MOU
	'10.05	EDCF 기본협정, 환경협력MOU, 에너지협력MOU
	'13.06	EDCF 기본약정 갱신(차관한도 2억 → 3억 달러인상)
	'14.03	무상원조 기본 협정
교역 규모	'21 한국의 수출/입: 1,636백만달러(58.3% 증가) / 552백만달러(40.4% 증가) '22 한국의 수출/입: 2,357백만달러(44.1%증가) / 677백만달러(22.8%)	
교역품	수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정밀화학제품, 직물, 기계류 수입: 의류, 생활용품, 비철금속제품, 농산물	
투자 교류	○ 한국의 대 방글라데시 투자(신규법인지사/투자금액) - (2020) 15건 / 24백만 달러 - (2021) 11건 / 8백만 달러 - (2022) 11건 / 37백만 달러 ○ 법인 및 지사수 : 약 150개사 ○ 업종별 투자현황 - 통상 제조업 투자가 80% 이상이며 의복/의복액세서리 등 섬유제품 위주	
교민	약 1,600명(2023년 4월 1일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

3. 주요 경제지표 및 특성

GDP	3,520억 달러('21) (IMF)
GDP 성장률	5.2%('20) → 6.8%('21) (IMF)
1인당 GDP	2,110 달러('21) (IMF)
물가상승률(CPI)	5.4%('21) → 7.7%('22) (IMF)
화폐 단위	Taka(TK), 공식 표기는 BDT
환율	USD 1 = BDT 107.02 (2022년 4월 1일 기준) * 중앙은행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제한적 변동환율제 시행
외환보유고	311억 달러('23.3월) (Bangladesh Bank)
산업 구조(%)	농림수산업(13.3%), 광업(1.7%), 제조업(24.2%), 전기/수도/가스/(1.6%), 건설(7.9), 유통(13.9%) 등 (2020/2021회계연도 방글라데시 통계청)
교역 규모	수출: 521억 달러/ 수입: 922억 달러('22) (Bangladesh Bank)
주요 교역품	수출: 의류(약80%), 가죽, 신발, 황마, 냉동수산물, 차(茶) 수입: 섬유, 기계류, 연료, 전자/전기, 철강 및 금속(Bangladesh Bank)

□ 경제 원동력

- 봉제의류 : 세계 제2위 의류 수출국, 국가 수출의 80%, GDP의 12% 차지
- 농림수산업(GDP의 13.3% 차지), 연간 70억 달러 이상 규모 해외 원조
- 해외 근로자 송금 : 연간 40-50만명 파견, 송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2022년 기준 약 210억 달러 추정, GDP 7% 상당)

□ 장애 요인

- 인프라/전력/가스/제도 미비, 비즈니스 환경 세계 168위/190개국(WB, 2021)
- 부정부패의 만연, 부패인식지수 147위/180개국(국제투명성위원회, 2022)
-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 지연, 의류산업의 권력화가 他산업 성장 및 외국인투자 저해

□ 잠재력

- 영어 가능 저임 노동력 풍부, 거대 내수시장(세계 8위 인구)
- 내수 시장을 겨냥한 현지 대기업들의 신제조업 투자 확대 추세
- 해외원조 확대: 지정학적 중요성 증가(中,日), AIIB 출범에 따른 원조기관 간 경쟁

II. 방글라데시 경제현황과 전망

1. 방글라데시 경제지표 추이

구분	지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 일반	인구	백만명	164.8	164.9	165.4	166.8	169.2
	면적	km ²	147,570				
	한반도 대비면적	배	약 2/3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7.9	7.3	5.2	6.8	-
	1인당 GDP	USD	1,602	1,906	1,978	2,110	-
	명목 GDP	USD 십억	288.4	317.5	329.0	352.0	-
	정부부채	GDP 대비 %	28	29.3	32.1	33.9	31.5
	소비자 물가상승률	%	5.6	5.5	5.6	5.4	7.7
대외 경제	수출실적	USD백만	37,563	36,666	33,674	37,440	52,080
	수입실적	USD백만	44,249	50,614	48,484	50,807	92,230
	무역수지	USD백만	-6,686	-13,948	-14,810	-13,367	-40,150
	환율	USD1 당	83.24	84.45	84.83	85.80	104.9
	외환보유고	USD백만	31,475	32,689	43,167	42,851	33,748
	이자율	%	6.00	6.00	6.00	7.38	7.22

주: 이자율은 연말 기준금리(REPO) 기준

자료: IMF,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Statista, CEIC

2. 방글라데시 경제현황과 전망

□ 경제현황

- 방글라데시 경제는 2011년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농업생산, 해외 근로자 송금, 내수 및 신규투자도 증가하는 추세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0.7월~2025.6월)을 통해 연평균 7.69%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며 GDP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정부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범위 확대, 빈곤층 감소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
 -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5.2%에 이어 2021년에는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최빈국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 2012년 이후 물가와 금리가 안정세였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
 - 2016년 이후로는 5%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2022년에 물가상승률 8%에 가깝게 상승 (2021년부터 금리도 7%로 인상되어 상승 조짐)
- 2015년 하반기 이후 무역적자 확대로 타카화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4월1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7.02타카
- 2010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된 이래 방글라데시 최대 산업인 의류산업 최저임금은 숙련도 최하 기준 월 3,000타카로 유지되었다가 2013년 11월 월 5,300타카로 76.7% 인상되었으며, 2018년 12월 다시 월 8,000타카로 50.9% 인상되었으며, 2023년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예정
 - 근로자들의 추가 인상 요구와 기업들의 반대가 대립되고 있어 추가 인상 압력이 높은 실정
- 해외 근로자 송금액도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라 소폭 감소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에 127억 달러 수준이었던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액이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22년 기준 소폭 감소하여 약 210억 달러로 추정됨

○ 해외원조 지속 증가중

-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에 따르면, 2005/2006회계연도만 해도 원조액이 지출액 기준으로 15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2022회계연도에는 72억 달러로 네 배 가량 증가

■ 경제전망

○ HSBC에서는 2030년 방글라데시 경제규모를 세계 26위로 예측

- 2018년 기준 42위에서 2030년 26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국가로 전망

○ 방글라데시는 이미 개도국을 벗어나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

- IMF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2,110 달러이며 총 GDP는 3,520억 달러로 세계 41위를 기록

○ 방글라데시는 2026년 최빈 개도국 특혜관세를 졸업할 예정으로 무역특혜 상실에 따른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 운영비용 감축 및 주요국들과의 FTA 체결을 모색할 전망

- 방글라데시 정책연구소(PRI: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Bangladesh)에 따르면, 무역특혜 상실로 인한 방글라데시의 수출 감소가 연간 7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최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2007년 UN이 정한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최빈 개도국 50개국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 1억 6,918만명(2023년 4월 기준)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소득 수준이 점차 상승하여 소비재 시장이 지속 성장할 전망

○ 향후 2025년까지 연평균 6-7%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방글라데시 정부는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0.7월~2025.6월)을 통해 연평균 7.69%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며 GDP 성장,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정부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범위 확대, 빈곤층 감소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
-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5.2%에 이어 2021년에는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3. 대외교역 동향

□ 방글라데시 수출입 추이

- 방글라데시는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
 - 수출의 경우 의류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가죽/가죽제품 및 신발류의 호조세 지속(코로나 영향으로 2019년 및 2020년은 수출 감소)
 - 수입은 신규 투자확대와 구매력 상승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은 수입 감소)

방글라데시 수출입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금액(US\$백만)	37,563	36,666	33,674	37,440	52,080
	증가율(%)	4.6	-2.4	-8.2	11.2	39.1
수입	금액(US\$백만)	44,249	50,614	48,484	50,807	92,230
	증가율(%)	4.4	13.4	-3.3	4.8	81.5
무역수지		-6,686	-13,948	-14,810	-13,367	-40,150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 주요 수출입 대상국

- 최대 수출품목인 봉제의류가 대부분 유럽 및 북미로 수출됨에 따라 수출 상위 국가에도 동 지역 국가들이 포진
 - 2021년 기준 미국이 제1위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3.5%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독일, 스페인, 영국, 폴란드 등이 따르고 있음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20			2021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1	독일	6,553	19.5	미국	8,796	23.5
2	미국	6,262	18.6	독일	8,485	22.7
3	영국	3,051	9.1	스페인	3,605	9.6
4	스페인	2,953	8.8	영국	3,299	8.8
5	폴란드	2,271	6.7	폴란드	2,946	7.9
6	프랑스	1,729	5.1	프랑스	2,124	5.7
7	네덜란드	1,460	4.3	인도	1,764	4.7
8	이탈리아	1,385	4.1	네덜란드	1,683	4.5
9	일본	1,305	3.9	이탈리아	1,522	4.1
10	캐나다	1,181	3.5	캐나다	1,505	4.0

자료: UN Comtrade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입 대상국은 중국
 - 2021년 방글라데시의 대 중국 수입은 방글라데시 총수입의 47.4%를 차지
 - 중국 다음으로는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주요 수입 대상국임
 - 한국은 2021년에 방글라데시의 제 11위 수입 대상국임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20			2021		
	국가	수출액	비중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	15,031	31.0	중국	24,095	47.4
2	인도	7,686	15.9	인도	14,093	27.7
3	싱가포르	2,182	4.5	싱가포르	3,622	7.1
4	미국	1,790	3.7	인도네시아	2,923	5.8
5	인도네시아	1,633	3.4	일본	2,349	4.6
6	브라질	1,484	3.1	미국	2,337	4.6
7	일본	1,449	3.0	말레이시아	2,259	4.4
8	홍콩	1,284	2.6	브라질	1,824	3.6
9	말레이시아	1,175	2.4	러시아	1,721	3.4
10	한국	989	2.0	홍콩	1,678	3.3

자료: UN Comtrade

□ 주요 수출입 품목

- 방글라데시 정부의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임
 - 의류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신발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면(원사)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III. 한-방글라데시 경제교류

1. 한국과의 교역동향

- 한국의 방글라데시와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수출 약 23억 달러, 수입 약 7억 달러로 연간 30억 달러를 상회
 - 한국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은 2011년 16억 2,800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증가세로 전환 후 꾸준한 증가세
 -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양국간 교역규모가 감소했으나 2022년에는 수출입액 모두 역대 최대액 갱신

한국의 對 방글라데시 수출입 추이 (단위: US\$백만)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1,158	293	865
2017	1,276	285	990
2018	1,238	347	891
2019	1,282	405	877
2020	1,034	393	641
2021	1,636	552	1,084
2022	2,357	677	1,680

자료: 한국무역협회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외환부족으로 국책사업 규모가 축소 또는 현상 유지
 - 그러나 과거에 비해 상대적인 정치안정으로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 기대
 - 국제원조 급증에 따른 프로젝트 확대에 관련 기자재 및 기계류 수입 기대
 - * 특히 전력기자재, 수처리설비, 신에너지 관련 제품 유망
 - 소득증가로 인해 내수시장을 겨냥한 신규 제조업 투자가 확대중
- 면화 등 천연섬유 위주의 봉제산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조섬유 산업 육성
 - 현지 섬유산업 확대에 따른 섬유기계 혹은 인조섬유 관련 원자재 수요 확대기대

2. 한국기업 투자동향

-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는 1978년 (주)대우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봉제 합작투자를 한 것이 시초로 방글라데시 봉제산업의 모태가 됨
 - 이후 영원무역의 합작투자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방글라데시는 의류생산 기지로 발돋움하기 시작
-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누적 투자액은 실행 기준 약 4.3억 달러
 - 통계상 전체 법인 수는 331개로 나타나나 신고 후 진출 취소 등을 감안한 실제 진출기업 수는 150개 내외로 추정

한국의 對 방글라데시 직접투자 추이(실행기준)

연도	신규법인/지사 수(개)	투자금액(백만달러)
1980-2005	126	177
2006	12	1
2007	21	11
2008	11	7
2009	10	6
2010	14	45
2011	10	9
2012	14	13
2013	7	9
2014	3	6
2015	15	5
2016	10	7
2017	9	21
2018	16	15
2019	16	29
2020	15	24
2021	11	8
2022	11	37
합계(누계)	331	4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80% 상회)되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의류 제조에 집중
 - 1980년대 중반부터 섬유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하여 전체 제조업 투자액 대비 의류 분야 비중은 약 35%이며, 모자 등 기타 섬유제품까지 포함하면 80%에 달함
 - 제조업 이외 주요 투자 업종은 광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
- 기존 직접투자가 제3국 수출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증가하는 경향